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 Case Excavation

○ Content
Diffuse development

○ Campaign

○ Research Field
support

○ System Support

○ Policy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CTS Next Generation Movement Headquarters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바로 다음세대의 위기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출범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축복받은 성도의
선교 사명 실천

다음세대
희망씨앗 심기



지금 이 다음세대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섬김이 다음세대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다음세대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확산, 보육과 교육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교회성

실천 모범사례의 발굴·홍보,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육과

교육 사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다음세대운동본부 02-6333-1110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LET'S START THE MISSION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CTS Next Generation Movement Headquarters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바로 다음세대의 위기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출범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CTS다음세대 운동본부 출범자료집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감경철

발행처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www.cts.tv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02.6333.1110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02.2278.9260

© 2021 CTS다음세대운동본부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나다

발간사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소개	13
목표 및 활동계획	14
BI소개	16
CTS다음세대운동본부	17
경과 및 연혁	20



외치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프로그램	24
기도	26
대회사	28
출범인사	34
선언문	36
축사	37
비전기도	44



알리다

심포지엄 격려사	45
심포지엄	
[강연1]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48
[강연2] 이수훈 목사 (당진동일교회)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 교회'	60



소통하다

출범식 사진 및 언론보도

출범식 사진	72
홍보 및 언론보도	76
CTS 다음세대 프로그램 소개	82

CTS다음세대

운동본부

출범자료집

발간사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바로 다음세대의 위기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출범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말간사
한국 교회
다음세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10

CTS다음세대
운동본부 소개
13

목표
14

활동계획
15

BI소개
16

CTS다음세대운동본부
17

경과 및 연혁
20

발간사

한국 교회 다음세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구 감소의 현실을 막아보고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총 225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더 낮아졌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가 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196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세대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수많은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다음세대를 위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TS는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등을 통해 창사 이래 지난 26년간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CTS는 교육과 보육만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보육과 교육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과 고충을 끌어안고 섬김으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진다면 출산율까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여러 공간을 열어놓고 지역사회의 다음세대를 세우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청년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사회가 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많은 분의 기도와 헌신 속에 한국교회와 함께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셨던 한 걸음 한 걸음을 돌아보며, 한국 교회와 나아가 이 나라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에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하며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그리고 다음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총재 이철, 신정호, 소강석, 감경철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발
출발
감경
추진

만나다



PART 1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소개

목표 및 활동계획

BI소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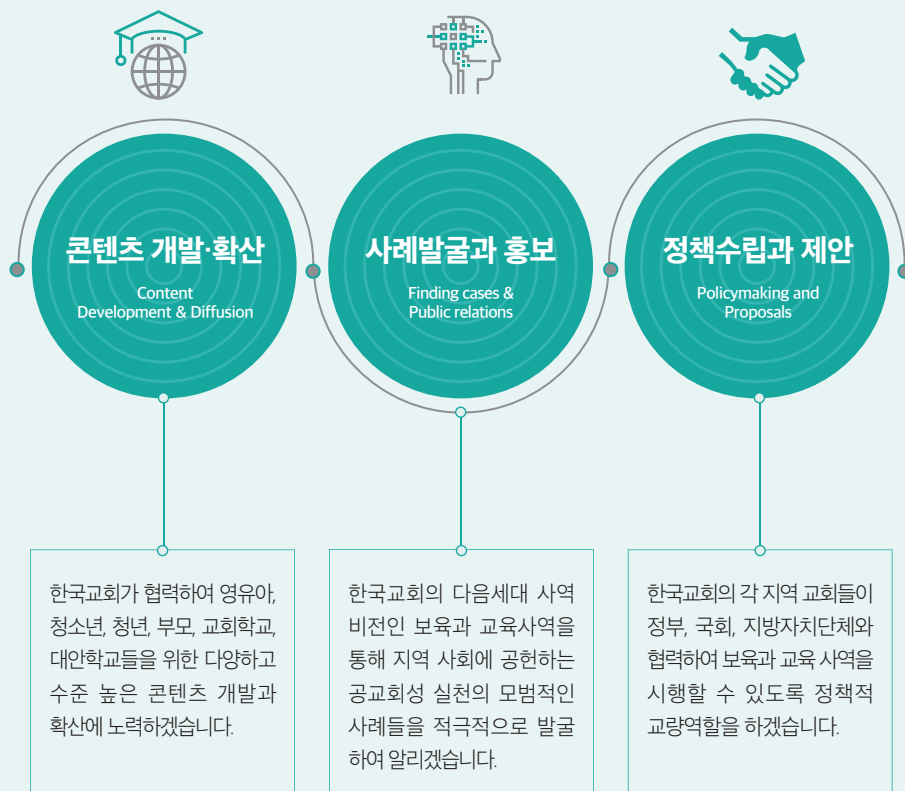
경과 및 연혁

MISSION

CTSD다음세대운동본부



다음세대운동본부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공간 활용 및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섬김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다음세대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세대 세우기 운동을 범국민적 다음세대 운동으로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세워 가는데 견인차가 되도록 한국교회부터 시작하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활동계획

캠페인



- ① 다음세대 캠페인 및 방송 홍보, 전국 설명회 통해 지역교회들의 다음세대운동 참여와 활동 독려
- ② 포럼, 세미나로 교회의 다음세대 활동 사례 및 열매 발표 통해 지역사회 출산율 증가, 보육과 교육 향상 기여
- ③ **합계출산율 2.1UP** 운동
정부정책과 연계해 단계별 집중캠페인 국민운동 전개
- ④ 다음세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규제 철폐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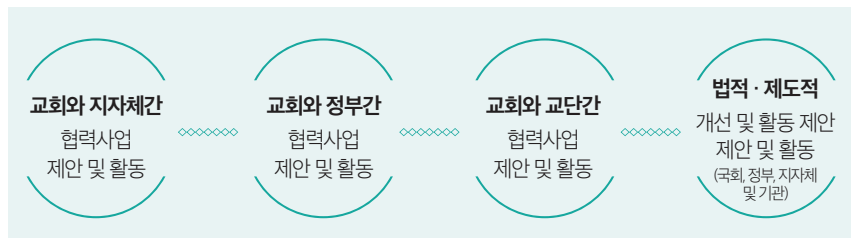
정책연구 · 현장지원



교회 콘텐츠 활용을 위한 기획 | 컨설팅 | 강사지원

- ① **다음세대 콘텐츠**
 - **청소년캠프** - 12가지 성품 함양 / 분야별 멘토링 및 코칭 / 비전 컨설팅(예: G12MVP)
 - **지역 돌봄센터** - 교회의 공동육아 공간 / 돌봄센터(예: 우리 마을 아이사랑방)
- 지방자치단체와 MOU체결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회공간을 활용한 돌봄 확산(예: 꿈나무 비전센터, 마더센터)
 - **4차산업 인재개발** (미래혁신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 ② **청년세대 콘텐츠**
 - 만남, 결혼, 임신, 태고, 출산, 육아, 취업까지 청년세대 단계별 지원 정책
- ③ **부모교육 콘텐츠** - 부모 세미나, 교육의 가치관, 건강한 가정
- ④ **미래교육 콘텐츠** -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위한 강사 교육
- ⑤ **저출산과 다음세대 선진국 사례 연구 및 적용 연구**

법적 제도지원



BI (Brand Identity)



디자인컨셉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로고는 다음세대의 초성을 기본 구성으로 ‘o’은 ‘보육’을 의미하는 어머니의 품을, ‘s’은 ‘교육’을 상징하는 학교를 시각화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초록, 노랑, 파랑, 분홍색의 4가지 컬러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표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부모가 되어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워가겠다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조직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가나다순
2021.08.31.현재
(총295명)



고문

길자연 김동엽 김명혁 김삼환 김상복 김선규 김선도 김순권 김영태
김정서 김종준 김준규 김진호 김진홍 김태영 림인식 박무용 박위근
박종순 박종화 백남선 서임중 서재일 신경하 안명환 우원근 이강평
이광용 이성희 이승희 이영환 임현수 장차남 전계현 전명구 전병금
정복량 정성진 정영택 지용수 최병남 최성규 최홍준 최희범



총재

감경철 소강석 신정호 이 철



자문 위원

강희욱 고경환 고명진 고영기 권득철 권오철 권용근 권태진 권혁대
김경수 김경수 김근수 김기석 김동민 김명희 김문기 김미순 김병삼
김선배 김양재 김영권 김영훈 김운용 김윤희 김은섭 김일수 김정석
김정일 김종원 김진열 김철중 김한성 김형민 김홍철 박광식 박래창
박명래 박문수 박병화 박상진 박성민 박영호 박종철 변창배 선우호
성창용 신규식 신은정 신재영 안 민 안성삼 안주훈 안희묵 양기엽
양명환 양영규 오영택 오정현 오정호 옥성석 윤창용 윤호균 이갑수
이경은 이광섭 이길형 이남규 이상대 이상문 이상재 이선옥 이수형
이수훈 이영한 이용기 이용주 이재서 이홍정 이후정 임석순 장범식
장세근 장순흥 장종현 장준재 전태식 정태기 조강신 조병찬 조성대
지형은 채수일 채은하 최남수 최대해 최성은 최일규 최재희 한상화
한영복 한영훈 허원구 홍 광 황병원



지역 본부장

강원 본부장	김미열	수도권 북부 본부장	김정현
경남 본부장	박정곤	안동 본부장	이정우
광주 본부장	맹연환	울산 본부장	이성택
대전 본부장	김 혁	전남 본부장	고만호
목포 본부장	김주헌	전북 본부장	박재신
수도권 경인 본부장	신용대	제주 본부장	오공익
수도권 남부 본부장	김철한	포항 본부장	박석진



실행 위원

강대열 강명국 고위한 고창주 공석원 광영준 광영철 국명호 권세광
 김광일 김기환 김대훈 김동현 김문훈 김성수 김성용 김성천 김성호
 김승욱 김영걸 김영수 김용대 김원웅 김인숙 김종민 김종식 김진영
 김창환 김철한 김학수 김형태 김혜숙 노인국 류정길 류재상 모경출
 모상련 문경욱 문병관 문영길 민경민 박귀환 박병덕 박은식 박장복
 박형민 배성현 배진기 배홍섭 백삼현 서길원 서화평 손병렬 송윤근
 송한은 신건일 신평식 심상철 심순섭 안광복 양성완 연제국 오성균
 원종문 유수영 유우열 유웅상 윤학희 이규현 이근우 이기용 이기원
 이석우 이석재 이선규 이옥희 이은성 이정우 이주백 이찬욱 이창교
 이행규 임다윗 장영운 장헌수 장현일 전기철 정만익 정창수 제인호
 조기원 조동원 조민기 조민상 조성덕 조성철 조 익 조장환 조주태
 지용근 진창설 차재용 최규명 최명덕 최영태 최운산 최정규 최정원
 최주철 최준연 최진녕 최해진 하재삼 한상일 홍성현 홍용희 홍한석
 황연식 황일구



후원 기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	-----------



협력 기관

국가조찬기도회
 미래목회포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연혁

CTSD다음세대 사역 연혁

2005

- 3월 영유아 보육전문가 초청 토론회
- 4월~12월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 프로그램 방송
- 6월 영유아 보육 세미나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교회 및 지역사회의 역할' : 한국 여성개발원 공동주관(코리아나호텔)
- 7월 한국교회 영유아 보육사업 조인 및 선언식 : 한기총 공동(코리아나호텔)
- 8월 영어 교육을 위한 사명자대회 (아트홀)
- 10월 기독교 영아보육 전문과정 특강 개강

2006

- 1월 제1호 CTS제휴 어린이집 '여의도순복음 어린이집' 개원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발족식 : 프레스센터
'CTS영유아문화원' 부서 운영 (제휴어린이집 37여개 현판식 14군데 진행)
- 6월 제1회 CTS아이사랑걷기대회 (올림픽공원 88마당)
- 10월 제1회 아이사랑 아기사진 콘테스트 개최
- 12월 제2호 CTS제휴 어린이집 '전주창대교회리더어린이집' 개원

2007

- 4월 제1회 CTS기독교TV 어린이 성경동화 구연대회 개최
- 5월 제3호 CTS제휴 어린이집 '남서울어린이집' 개원
- 6월 제4호 CTS제휴 어린이집 '바울어린이집' 개원
- 10월 제5호 CTS제휴 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 개원

2008

- 5월 제7호 CTS제휴 어린이집 '가현어린이집' 개원
제8호 CTS제휴 어린이집 '경동어린이집' 개원
- 9월 제9호 CTS제휴 어린이집 '왕궁중부어린이집' 개원
- 10월 제2회 CTS영유아축제 성경동화 찬양대회 개최
제1회 CTS주관 기독교대안학교세미나 「교육의 새로운 희망, 대안학교」
- 12월 제10호 CTS제휴 어린이집 '신당중앙어린이집' 개원

2009

- 4월 크리스천 국제학교 설립 세미나 - 서울(04. 06)/부산(04. 07)/광주(04. 09)
- 5월 기독교 교사 워크숍

2010

- 1월 국제학교 협의회 컨퍼런스
- 2월 출산장려 및 크리스천 영아전담시설 활성화 세미나(컨벤션홀)
- 4월 교육을 말하다 세미나
- 6월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발대식 : 프레스센터
- 11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세미나

2013

- 교회학교 교육프로그램
- 허미와 친구들 / 좋은나무 성품학교 / 탈무드 영재교육

2015

- 6월 "저출산시대, 한국교회는" 심포지엄 개최
- 9월 CGS 2016학년도 학부모 설명회
- 11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 세미나> 개최 : 고신대
다음세대를 위한 찬양콘서트 '이끌림홀리 연합집회' : 배재대 아펠젤러기념관
- 12월 CGS SEOUL 학부모 설명회 : CTS아트홀

2016

- 1월 크리스천글로벌스쿨(CGS) 예비학교 운영
- 3월 『CGS 서울』 개교 감사 예배
- 4월 C-KIDS스쿨 프로그램 설명회 : CTS아트홀
- 7월 **행복한 다음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전략 세미나**
- 8월 크리스천글로벌스쿨(CGS) SummerSchool 운영
- 10월 특별생방송 <CTS WEEK> '다음세대를 위해 올라'

2017

- 1월 2017 CTS연중기획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뉴스 방송 시작
- 3월 C-KIDS스쿨 프로그램 교사교육
- 5월 제1회 임산부 육아교실 (창원상남교회)

2018

- 9월 1기 교육선교 훈련프로그램 (교사 양성프로그램) 시행

2019

- 1월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 (20대 국회/박찬대 의원 법률안)
- 4월 CTS 청소년 기자단 발대 (약 20여명 학생 선발 뉴스 제작)
- 5월 ~ 6월 1~2차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세미나 (창원)
- 6월 (창원, 인천, 평택 등) 교육선교 훈련프로그램 시행
- 10월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전문과정 세미나**
- 10월 ~ 11월 기독교대안학교 교장 / 연구소장 간담회 1, 2차
- 12월 기독교대안학교 학생 디베이트 축제 결선 (기대연 공동 주최)

2020

- 1월 직원대상 신년특별 예배 (다음세대 비전공유)
- 2월 **CTS다음세대 지원센터 개소 및 전시장 오픈**
전국 기독교 대안학교 데이터 수집 (現 60여개 등록)
- 3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 유튜브 방송 녹화
- 4월 제1회 웨비나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 시작하기
25주년 기념도서 감경철 회장 著
기독교대안학교이야기 「숲을 꿈꾸며 밀알을 심다」 출간
제2회 웨비나 내학교에 맞는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하기
CGS-평택 개교감사예배 (1호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설립 학교)
- 6월 인천아름교회 아름 인터내셔널스쿨 개교 (2호 학교 설립)
CTS다음세대지원센터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 매뉴얼 발간(시리즈 총3권)
대안교육 법제화 설명회 (기독교대안학교 대상) 21대 국회 법률안발의 (박찬대 의원)
- 8월 **기독교방송최초! <CTSTV여름성경학교> 방송**
- 10월 CTS-PAUA(교육협력재단) 업무 협약식

2021

- 1월 창원 반림교회 킹스아카데미 (3호 학교 설립) 방과후 과정
기감 감독회장 간담회 CTS다음세대 사역 발표
- 1월 ~ 3월 (10주과정) 교육선교 강사훈련 과정 1기 (총 7명 수료)
- 2월 CTS다음세대 교육선교 전국 세미나 (서울)
- 3월 청주드림교회 하디글로벌 스쿨 개교 (4호 학교 설립)
게인코리아 게인글로벌리크리스찬스쿨 (5호 학교 설립)
- 4월 ~ 5월 CTS다음세대 교육선교 전국 세미나 (호남), (영남), (중부)
- 7월 14일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 심포지엄**



CTS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CTS



외치다



PART 2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프로그램

기도

대회사

출범인사

선언문

축사

비전기도

1부 출범식

· 진행 : **최슬기** 아나운서

기	도	김양재 목사 (자문위원, 우리들교회)				
경	과	보	고	영상		
대	회	사	이 철 감독회장 (총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정호 총회장 (총재, 예장통합총회) 소강석 총회장 (총재, 예장합동총회)			
지	역	본	부	장	ZOOM 화상연결	김철한 목사 (수도권 남부 본부장, 오목천교회) 김미열 목사 (강원 본부장, 원주중부교회) 맹연환 목사 (광주 본부장, 문흥제일교회) 박석진 목사 (포항 본부장, 포항장성교회)	
출	범	인	사		감경철 회장 (총재, CTS기독교TV)	
깃	발	전	달		다음세대가 총재에게	
선	언	문	낭	독		조병찬 장르 (CTS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행구 목사 (CTS다음세대 지원센터장) 이수훈 목사 (자문위원, 당진동일교회)
구	호	제	창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장현일 목사 (실행위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축	가	정하경·정서휘 (원일초5, 3)				
축	사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진표 의원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장종현 대표회장 (한국교회총연합) 이홍정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특	별	찬	양	김병희·이진영·이상은 (CTS찬송가경연대회 수상자)		
비	전	기	도	김종준 목사 (고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기	념	활	영	다같이		

2부 심포지엄

• 사회 :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격 려 사	고명진 목사 (자문위원, 수원중앙침례교회)
강 연 1	지용근 대표 (실행위원, 목회데이터연구소)
강 연 2	이수훈 목사 (자문위원, 당진동일교회)

강연 1. Lecture 1

한국 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강연 2. Lecture 2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 교회



출범식과 심포지엄 영상은

유튜브 채널

CTS기독교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김양재 목사
(자문위원, 우리들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천년, 반만년의 빈곤 국가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 성령의 번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번성에 눈이 팔려서 다음세대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코로나로 눈물의 매를 드셨는데, 나오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모압의 가치관의 빠져서 그곳으로 이사를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흘러 떠내려가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무서운 열심으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와 평등법에 매료되어 있고, 또한 기복과 우상과 이단, 인구절벽시대에 낙태법이 통과가 되는 건잡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렇게 한계상황의 고난이 와서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음성이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압 세상의 음란한 가치관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상에서 벗어나, 결의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음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리더십으로 자녀들이 키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식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다음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주어진 책임을 지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보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기 원합니다.

다음세대가 진정으로 자기 죄를 보는 진정한 겸손으로,
참으로 어우러진 다음세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서운 열심의 부모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겸손한 부모가 되어서, 이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의
다음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이 형식적이 아닌 본질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 운동이
한국과 전 세계를 바꾸는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진정한 성령의 번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회사



총재 **이철** 감독회장
(CTS공동대표이사, 기독교대한감리회)

66

메타버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메타버스란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99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통해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캐릭터가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일을 인터넷 공간에서 현실세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발달에 따라 미래 세대가 훌쩍 앞서가고 있어서 현재의 어른 세대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기술문명이 의사소통과 전달을 좌우하고 운동과 오락을 조종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다음세대가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율까지 급감하면서 인구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도 다음세대에 대한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입시 중심의 경쟁에 내몰려 꿈을 잃어버린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볼 수 없어서 한국 교회 공교단연합으로 설립된 CTS는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발달된 통신기술 덕분에 더 폭넓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집안의 냉장고, 보일러, 조명을 조종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등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도 연결되어 실제 보이고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히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활용해 방송해 오던 CTS가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 교회를 도와 다음세대를 세우는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대안과 콘텐츠를 개발해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다음세대가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세대의 영적 성숙과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신앙문화를 형성하는 캠페인도 벌일 것입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다음세대가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유튜브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술혁명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선지자 이사야의 꿈이 다음세대에게도 여전히 꿈이요 희망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출산 위기와 무한경쟁으로 꿈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음세대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다음세대를 위한 뜻있는 활동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회사



총재 **신정호** 총회장
(CTS공동대표이사, 예장통합총회)

안녕하십니까?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총재 신정호 목사입니다.

먼저 이처럼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는 뜻깊은 일에까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CTS는 오래전부터 이 땅의 다음세대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먼저 이미 십수 년 전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하고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NGO’와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해 오랫동안 캠페인과 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 교회 한 학교세우기’ 캠페인과 함께 CTS다음세대 운동본부를 세워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한국 교회의 교육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TS는 출산율 감소와 다음세대 보육·교육이 따로 떨어진 두 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보육과 교육의 부담감과 공적 시스템의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CTS는 또 다른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한국 교회 교육 섬김 운동인 CTS다음세대운동인 것입니다.

66

교육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99

저는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젊은 세대와 다음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해 왔던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아들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 땅의 다음세대를 끌어안는다면 반드시 우리 다음세대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꼭 필요합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5만 한국 교회의 교육사역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응집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모 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귀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총재 일동이나 행사 관계자들이 아닙니다. 다음세대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진실한 부모는 이들 자식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오직 그들이 잘되기만을 바랄 뿐 스포트라이트나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세대를 위해 이같이 진실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호인 “한국 교회 부모 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라는 구호에 담긴 뜻입니다.

다음세대라는 말은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바로 우리 앞의 자녀들, 손자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세상인 지금이 바로 다음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세대가 시작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은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새롭게 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을 공표함과 동시에 바로 지금부터 CTS와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 운동이 시작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활동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의 CTS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회사



총재 **소강석** 총회장
(CTS공동대표이사, 예장합동총회)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와 함께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별히 교회학교의 위기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럴 때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6

지난 십수 년간 출산장려운동과 다음세대 세우기 캠페인을 펼쳐온 CTS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때 우리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복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99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항상 바벨론 강가로 모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교회가 영혼의 토포필리아라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세대라는 말과 함께 교회세대라는 말도 씁니다.

교회세대를 이어가자는 말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 신학의 정체성, 성령의 역동성, 교회론적 가치를 다음의 교회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넘어 지역의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종민 교수가 쓴 “코로나 키즈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며 자라나는 세대를 ‘코로나 키즈’요, ‘코로나 세대, C세대’로 정의합니다.

C세대는 언택트 문화 속에서 인간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대면공포를 겪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까지 앓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C세대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모이기가 힘들다면 온라인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다음세대, 교회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출범인사



총재 **강경철** 회장
(CTS기독교TV)

안녕하십니까?

CTS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경철 장로입니다.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마침내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맞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처럼 비대면 Zoom으로, 방송으로, 한마음이 되어 함께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66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정체는 바로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99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만,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교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분은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로 <영유아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가치>를 밝힌 분입니다. 그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인에 대한 투자보다 열여섯 배 나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5세 영유아에게 1달러를 투자하면 60년 후 300달러의 사회적 가치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20세기 말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던 프랑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이 연구 결과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과감히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3세로 낮추고 교육 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국책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유아 보육 문제가 동반적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더 많은 나라에서 영유아 교육 강화에 동참했고, 최근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의무교육의 시작 연령을 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청년들에게 한국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며 출산하는 문화를 교회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결국 출산 장려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5만 한국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은 보육과 교육시설로 활용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그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그 실력과 인성이 흠잡을 데 없는 수많은 청년 교육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 다음세대 운동을 시작하면 다음세대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한국 교회와 함께 다음세대 교육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CTS 시청자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이 운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다음세대 운동에 한국 교회와 성도,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6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1:7)



DECLARATION

선언문

한국교회공교단이 연합하여 설립한 순수복음방송 CTS는 1995년 창사 이래 “우리 사회와 교회의 미래가 다음세대의 행복한 삶에 달려있다”고 믿고 출산 장려 및 보육과 기독교 가치를 전하는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CTS는 2005년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는 시대적 비전을 갖고 영유아에서 청소년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한국교회를 협력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로 인해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교회 역시 다음세대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변화와 결단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행복한 다음세대를 세워 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다음세대를 세워 나가기 위해 한국 교회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영유아, 청소년, 청년, 부모, 교회학교, 대안학교들을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사역비전인 보육과 교육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교회성 실천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알리겠습니다.

3

한국교회의 각 지역 교회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육과 교육 사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교량역할을 하겠습니다.

축사



국회의장 **박병석**

66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99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을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감경철 회장님, 이철 감독회장님, 신정호 총회장님, 소강석 총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CTS기독교TV가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선보여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돼 다음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방황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바른 가치를 지니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띠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해결책을 실천하려는 CTS기독교TV의 결단과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섬김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축복 아래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교회는 솔한 문제와 갈등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밝은 빛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지역사회와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도전을 응원합니다.

“한국 교회 부모 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라는 슬로건을 넘어 한국 교회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축사

66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99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매진하느라 자칫 미래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신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에 함께해 주신 이철 감독회장님,
신정호 총회장님, 소강석 총회장님, 감경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교회와 CTS기독교TV가 다음세대를 위해 쏟고 있는 열정과
사명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치러야 할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섣뚱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 앞에 다음세대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좌절하고 인성과 재능을 키워내는 교육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다음세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사회와 종교단체에서 보태 주시는 힘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음세대의 삶과 행복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그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에서 다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더욱
부지런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 번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6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장로입니다.

99

지난 26년 동안 우리 기독교 방송, 기독교 미디어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온 CTS가 참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게 된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TS가 다음세대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는 것은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같은 운동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시간과 인적자원 지원에도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신 감경철 CTS 회장님과 이철 감독회장님 그리고 신정호 총회장님, 소강석 총회장님 모두 총재를 맡으셔서 이 일을 감당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크리스천 중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다음세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라나는 다음세대가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축사

66

안녕하십니까,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입니다.

99

CTS기독교TV가 주도하고 전국의 교회가 함께하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출범은 다음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한국 교회의 절실한 외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다음세대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세대의 핵심인 2030의 세상살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애썼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해서 더 많은 이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통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욱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철 감독회장님, 신정호 총회장님, 소강석 총회장님, 감경철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것입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목사

지금까지 CTS가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방송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CTS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오늘까지 진력해 왔습니다. 그 선두에 감경철 회장님이 계십니다.

CTS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 주신 감경철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CTS가 앞장 서 다음세대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부모세대가 뜨겁게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세대 운동은 기도와 성령 운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에게는 성경말씀으로 복음, 구원, 성령을 가르쳐서 천국의 가치관을 확실히 심어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에 다음세대의 답이 있습니다.

CTS는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동, 통합, 감리교를 비롯해 많은 한국 교회 주주교단이 연합해 세운 방송국입니다. 함께 세운 만큼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국 교회 전체의 지지와 동참으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백석총회 소속 모든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겠습니다.

CTS가 시작하는 다음세대 운동이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가며, 더 나아가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세대는 직선적 시간의 흐름 끝자락에 매달려 따라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 곡선적으로 교차하면서 지금 여기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며 우리와 동행하는 세대입니다.

다음세대는 일방적으로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받고 기성세대의 유산을 전수하며 재생산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평등하게 한 시대를 호흡하며, 세대 간의 상호주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세대입니다.

다음세대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되는 가부장적 틀에 갇힌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내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의

삶을 개척하는 세대로, 그들이 구상한 새로운 사회상을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세대입니다.

다음세대는 단순히 인간사회의 인구학적 지속가능성의 지수를 가늠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꿈과 지식과 저력을 가지고 한 시대의 상호 공존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통해 미래를 개혁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세대입니다.

다음세대는 정치적 무관심에 매몰된 채 미래를 포기하는 N포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경쟁 속에 생존하며 다양한 행복의 조건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들 세대만의 부분적이며 상대적인 빈곤의 경험을 공정이라는 가치로 판단하며, 정치적으로 저항하며, 사회의 변화에 참여하는 세대입니다.

다음세대는 목표지향적으로 일에만 몰두하며 전체를 중시하는 획일적 집단문화의 세대가 아닙니다.

다음세대는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현실에서 작은 행복을 위해 재미를 찾는 개별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대입니다.

다음세대의 이 모든 성격과 정체성은 기성세대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이 다음세대가 자신들의 오늘과 내일을 세워 가는 주체가 되게 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CTS다음세대운동이 다음세대가 기성세대와 한국 교회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CTS다음세대운동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희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고문,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축하합니다.

CTS기독교TV가 그간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해 왔지만 지금도 좋은 일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66

가장 잘한 일 중 한 가지가 출산장려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운동으로, 시대를 앞질러 미리 대안을 제시하는 탁월한 운동이었습니다.

99

그동안의 운동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 대회본부까지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운동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점이 많습니다.

기독교문화를 창출하는 운동, 성경적·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교인들과 국민 속에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뿌리내리는 데는 우리가 많이 소홀했습니다.

차제에 다음세대까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또 자신에게, 국민에게 어떤 행복과 번영을 주는가 하는 물음의 해답으로서 이런 운동이 대를 이어가는 운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CTS기독교TV, 그동안 박봉에 고생하면서도 기꺼이 섬겨 온 우리 CTS 일꾼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기도



고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순수복음방송 CTS를 세워 주시고 그동안 일취월장 성장, 발전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세상은 저출산과 고령화와 세속화의 물결이 가속되어 다음세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위기에 처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 지도자를 양육하고, 양질의 보육과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다음세대를 세워 도탄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세대의 복음화를 통하여 침체되어 가는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여 최상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운동이 범 교계와 사회로 확산되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건강한 미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가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6

반갑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입니다.

99



자문위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미래세대가 복음세대, 말씀세대, 예수님을 닮아 가는 ‘예닮세대’가 되기 위한 거룩한 꿈을 품고 시작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감경철 회장님을 비롯한 공동 총재님들, 또 출범식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떤 격려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냥 ‘Thumbs up!’ 했으면 좋겠습니다.

‘Two Thumbs up!’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두 개의 엄지를 올려 정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전쟁이 끝난 이후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출생아는 1,080,535명이었습니다. 출산율로 보면 한 부부가 6.16명을 낳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부부 한쌍이 0.84명을 출생하는 출산율 최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가장 흥왕하고 왕성할 때 복음화율은 약 20%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이 현재 62세입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에 100명 있다면 작년과 재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60년 뒤에는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7만 명, 재작년에 태어난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앞으로 60년 뒤에 27명, 30명꼴로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음화율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970~80년대 복음화율이 20~25%였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25명, 30명이 아니라, 그 수치의 약 5분의 1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2세의 100명 교인이 앞으로 60년 뒤에는 그저 4~5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넘어 다음세대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시기에 CTS가 특별히 영적인 안목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탁월한 감경철 회장님과 함께 임직원 모두가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의미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점을 정말 격려하고, 축하하며,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지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한국 교회 데이터 연구와 그리고 실제로 보육과 교육을 맡고 있는 일선 교회의 두 분 지용근 대표님과 이수훈 목사님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Two Thumbs up!” 축하합니다.

보육과 교육 책임지는 지역 교회



DOCTSD
다음세대운동본부

DOCTSD
다음세대운동본부

알리다



PART 3

심포지엄

[사 회] **장헌일** 목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강연1]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강연2] **이수훈** 목사 (당진동일교회)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 교회

[강연 1]

한국 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 (주)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본부장
- 연세대학교 사회학졸업
-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실행위원

<대표 저서>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VOL.1·VOL.2), 목회데이터연구소

반갑습니다. 저는 지용근입니다.

먼저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사용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한국 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2021. 07. 14.

(주)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지용근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미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수치적으로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수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의 위기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희망도 보여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또 희망적인 데이터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다음세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음세대 상황

이 통계표는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 자료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율을 봤는데, 일단 교회 밖 학령인구의 일반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교 연령대에서 고3 때까지 인구가 10년 사이에 약 25% 줄어들었습니다.

교회학교 감소 속도, 일반 학령인구보다 1.5배 더 빨라!

[표] 2010 ~2019년 학령인구 vs 교회학교 인구 변화 추이

(단위 : 학령인구 1,000명, 교회학교연구 : 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계		
	2010	2019	증감율	2010	2019	증감율	2010	2019	증감율
학령인구	3,280	2,765	-16%	4,069	2,772	-32%	7,349	5,537	-25%
교회학교인구	228,459	144,695	-37%	188,304	115,025	-39%	416,763	259,720	-38%

*학령인구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2019.03.

**교회학교 인구 추이 : 예장통합교단 교세 통계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주일학교는 38%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의 주요 교단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회학교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인구보다 1.5배 빠르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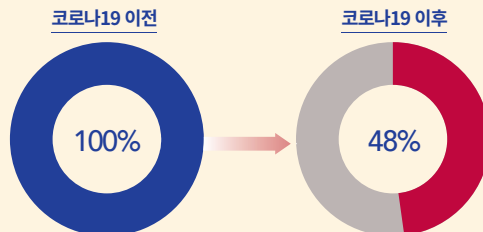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에 47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정확히 10년 뒤인 지난해(2020년)에는 드디어 30만 명 선이 붕괴되며 27만 명에 그쳤습니다.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되면서 지금 학령인구가 25% 정도 줄었고, 이제 교회학교 인구도 약 38% 줄어든 것입니다. 감소 속도가 1.5배 더 빠른 것인데, 어떻게 이 부분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또 복음화해서 학령인구가 빠지는 속도보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덜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앞으로 운동본부에서 수행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말 예장합동교단에서 조사한 것인데, 전국의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본 사역, 교회학교 코로나 이전 대비 48% 수준

[그림] 코로나19 이후 주일학교 학생 예배참여 수준
(코로나19 이전 100점 기준, 온라인 예배 포함)



* 출처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목회자 조사보고서'
(목회자 600명, 모바일 조사, 2020.11.22~12.03)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것인데, 코로나 전에 예배에 참석했던 주일학교 학생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더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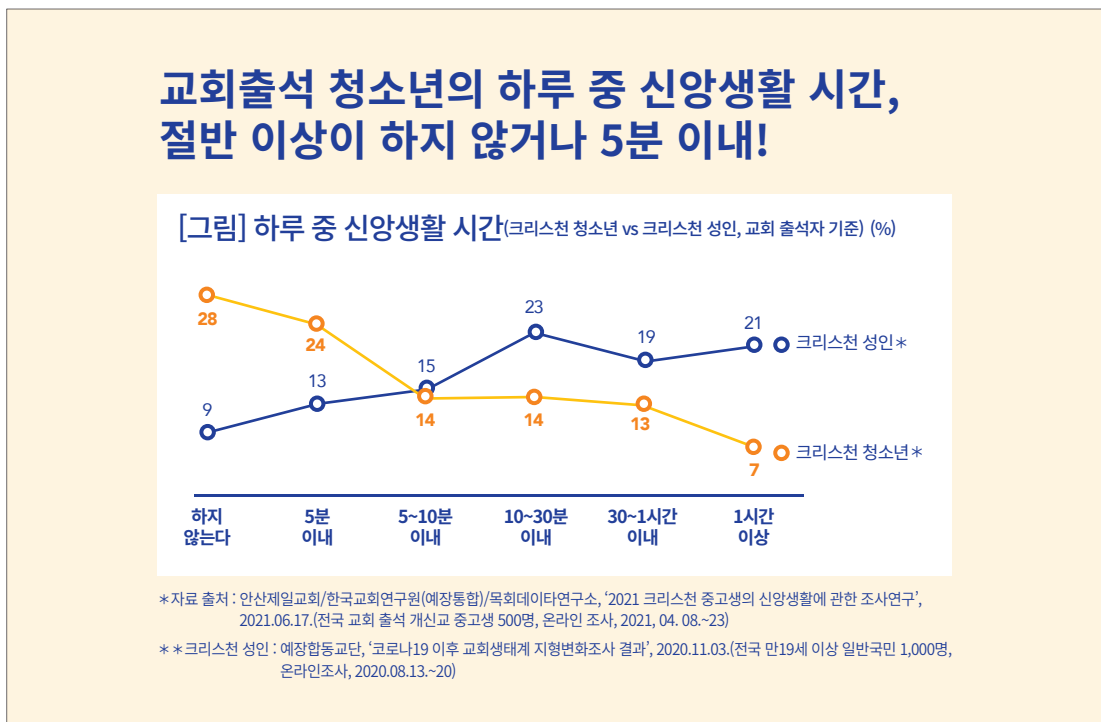
포함해서 4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학교 학생 중 절반 정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중대형교회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도 학생이지만 교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작년 말 데이터이고, 올해 예정통합교단에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 그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올해 데이터는 6월 데이터인데 그건 지금의 48%보다 더 줄었습니다. 42%까지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측정해 봤는데, 성인 크리스천과 청소년 크리스천을 비교해 봤을 때 “평소 하루 중 신앙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4월 중·고교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들 청소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학생이 28%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 5분 이내가 24%니까 5분 이내면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식사기도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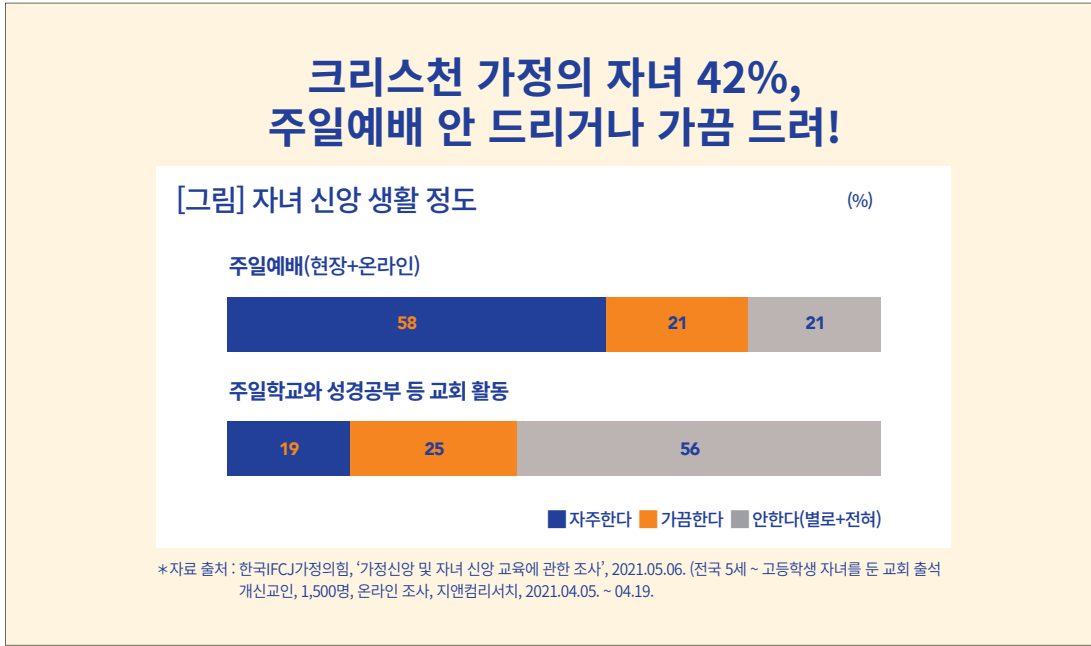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 중·고교생 중에서 절반 이상인 54%, 52%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루에 5분 이상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예배 참석률이 낮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굉장히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올해 4월 한국IFCJ가정의 힘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전국의 5세 유치원생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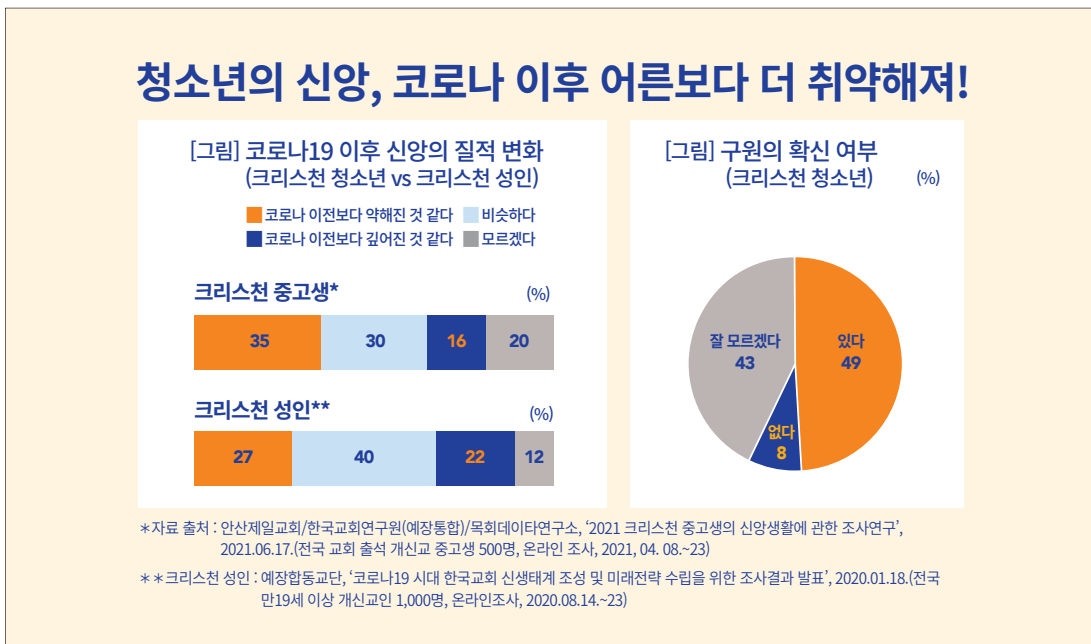
고3까지의 자녀를 둔 개신교 교회 출석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본인의 자녀가 교회를 얼마나 자주 다니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예배를 아예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리는 자녀가 42%나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 중 42%는 교회활동을 잘 안 하는 셈입니다.

아울러 크리스천 부모 가정에서 교회학교나 성경공부 등 교회 활동을 하는 자녀가 19%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이렇듯 다소 위험한 수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전에 중·고교생 청소년의 신앙 상태가 좀 약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신앙 상태를 어른과 비교해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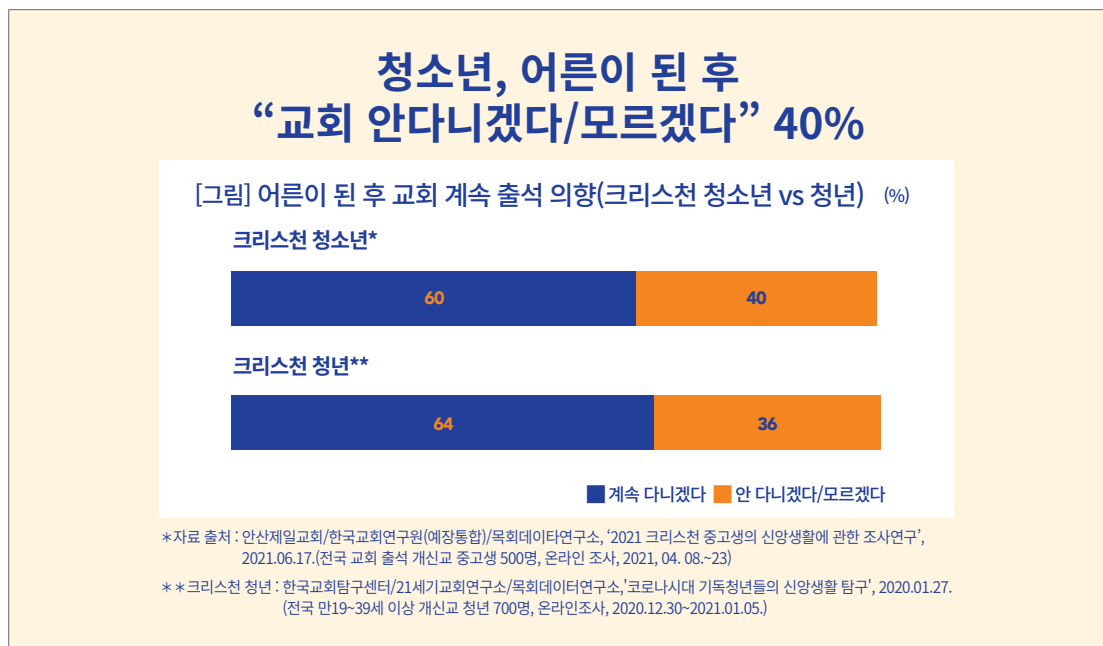


이 자료에서 어른 자료는 작년 말 데이터이고 크리스천 중·고교생은 올해 4월 데이터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자기 신앙의 질적 변화가 어떤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을 비교해 보면 크리스천 성인은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27%였고, 크리스천 중·고교생은 35%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어른은 22%인데, 중·고교생 청소년은 1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신앙이 약해진 비율이 확실히 성인 크리스천보다는 청소년 크리스천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 원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청소년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또 “어른이 된 후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겠습니까, 다니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대답한 크리스천 청소년은 60%, ‘안 다니겠다’ 또는 ‘모르겠다’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또는 잘 모르겠어’라고 유동적으로 대답한 청소년이 40%나 되므로 10명 중 4명 정도가 미래 교회 출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기독교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초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기독교청년들도 마찬가지로 36%는 앞으로 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년과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꼴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부모교육과 가정 신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계속 다니겠다고 대답한 크리스천 청소년이 60%이지만, 이들의 부모가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비개신교인인 청소년은 ‘앞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겠다’는 대답이 27%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일단 개신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그래도 향후 신앙생활을 할 비율이 60%나 되는데, 비개신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만 미래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를 다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가 개신교 교인인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잘 다져서 성장시키고 교회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개신교 교인이 아닌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이들 두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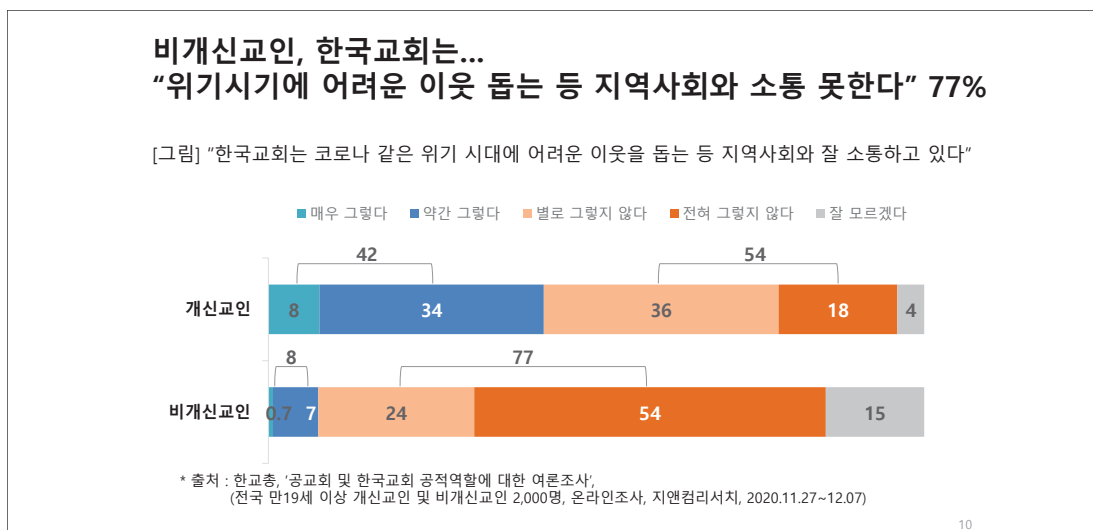
2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

또 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교총에서 ‘공교회로서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을 주제로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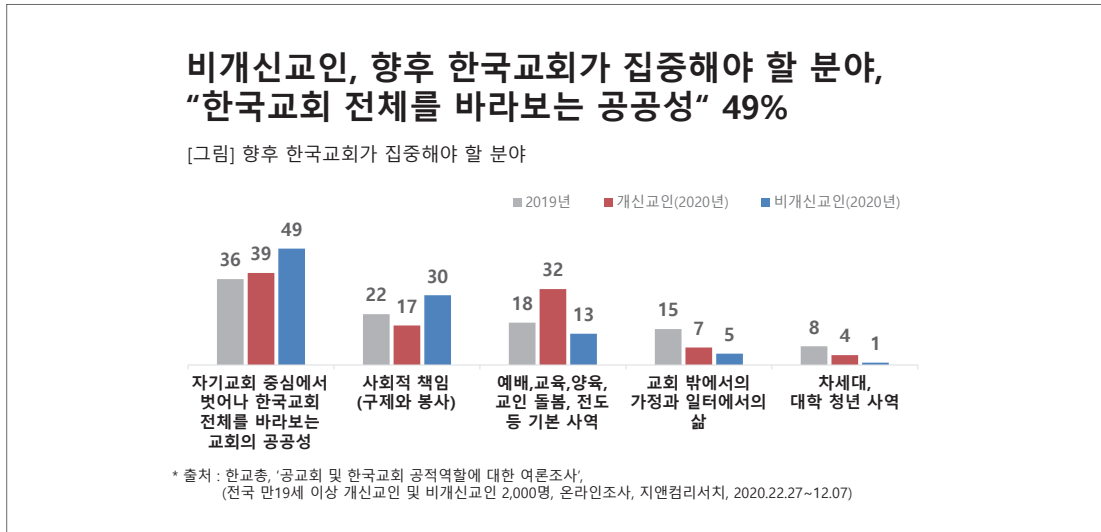
바로 이 자료에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같은 위기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개신교인이 42%였고 비개신교인은 8%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개신교인 중에 5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고, 비개신교인 중에서는 77%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의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개교회적으로 구제도 정말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개신교인 중 77%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인들에게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 공공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답이 36%였는데, 2020년도에는 49%로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개신교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반인과 크리스천 모두 교회 공공성 강화에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는 개신교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보육과 교육에 관한 CTS 조사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자료만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이 조사는 개신교인의 경우 0세부터 만 18세까지 자녀를 둔 개신교인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목회자는 전국 교회 담임목사 336명을 같은 기간에 조사했는데, 이 자료 중에서 교육과 보육에 관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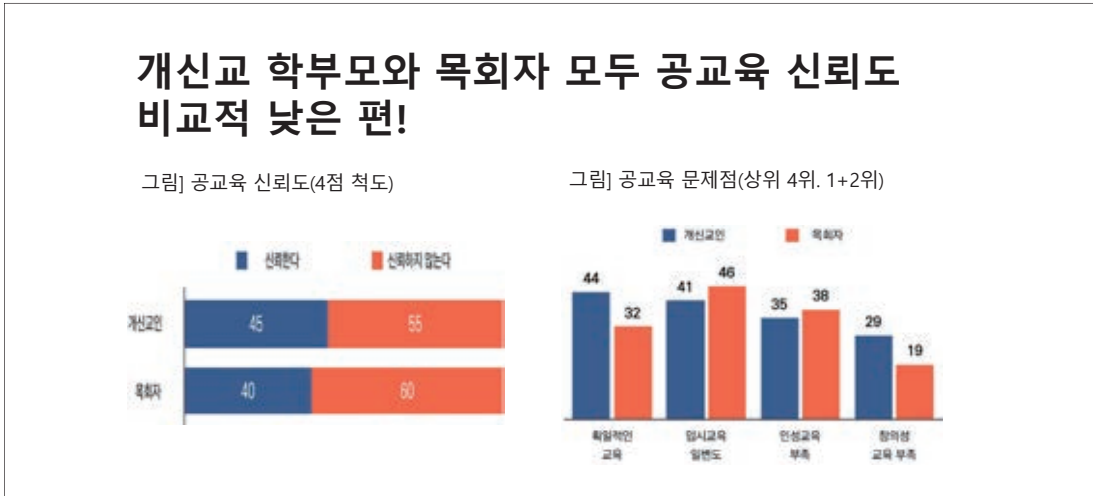
3

교회의 보육과 교육에 관한 개신교인과 목회자 인식조사

- 1. 개신교인 조사**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1,000명
 - 개신교인 지역 / 성 / 연령/비례할당추출, 온라인조사 (2021년 6월 15일 ~21일)
- 2. 목회자 조사**
 - 전국 교회 담임목사 336명
 - 모바일조사, 편의추출법 (2021년 6월 17일 ~ 7월 5일)

학부모와 목회자에게 공교육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개신교인 학부모는 ‘신뢰한다’가 45%, ‘신뢰하지 않는다’가 55%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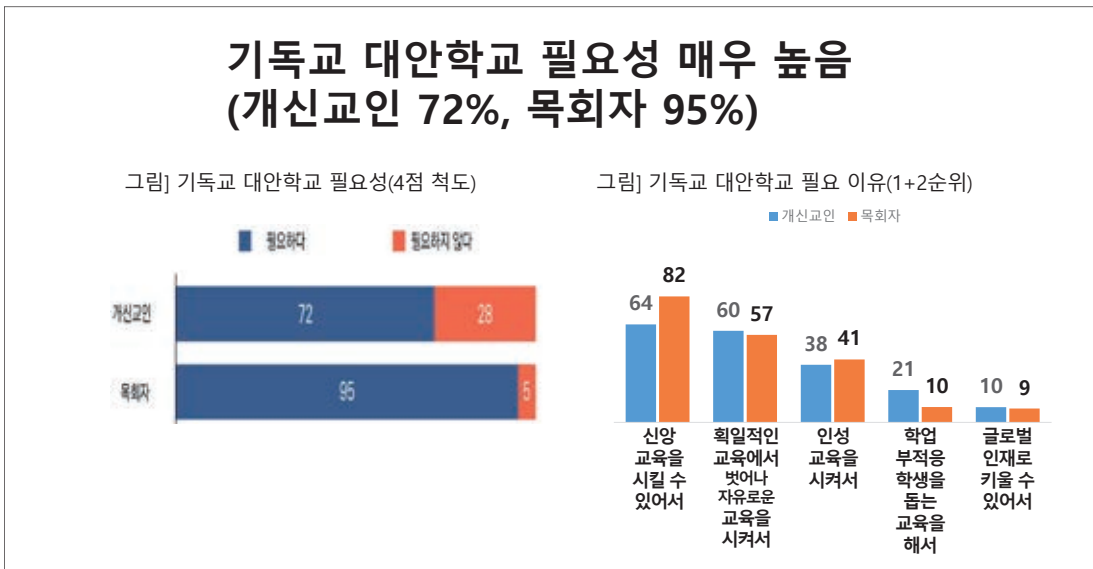
비개신교인 학부모도 비슷할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우리 개신교인 학부모는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5%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60%로 더 높게 나옵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개신교인의 답변을 보면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입시교육 일변도여서 문제이다’, ‘인성교육의 부족함이 문제이다’ 순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목회자는 입시교육 일변도가 문제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부모와 목회자 모두 획일적인 교육이나 인성교육이 부족한 입시 중심의 교육이 문제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공교육은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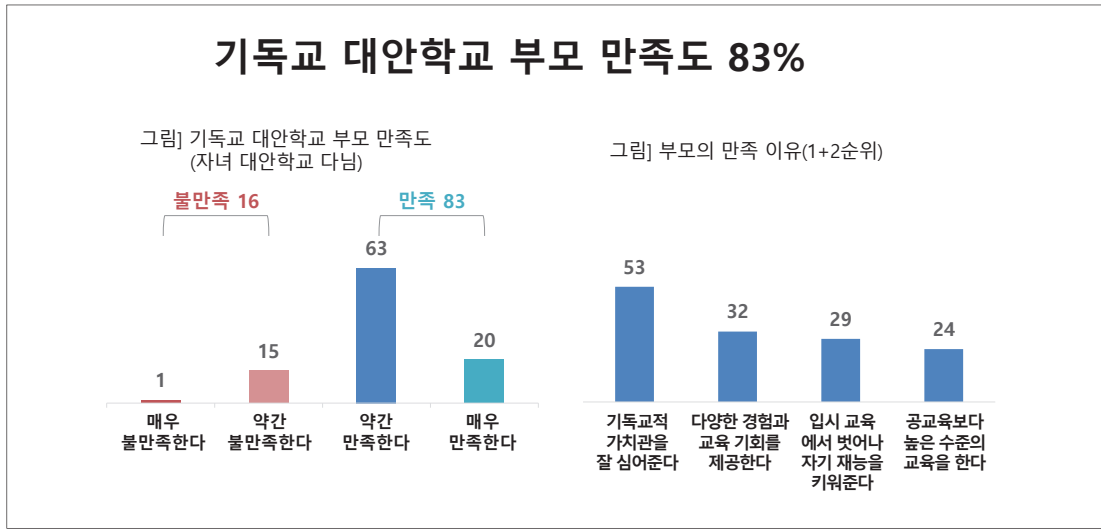
그다음은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신교인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이렇게까지 높게 인식하고 있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목회자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을 줄 몰랐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개신교인 중 72%, 목회자 중 95%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 학부모는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순이었습니다.



목회자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중에서도 목회자는 다음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식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 현재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이들에게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인 83%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대안학교가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지만, 현재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심어준다'가 53%였습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며 우울증에서 벗어났으며 학교생활도 너무 좋다고 하니 이 들 부모도 너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니 부모도 같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모가 만족하는 이유 중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심어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재능을 키워준다' 순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는 응답이 24%라는 꽤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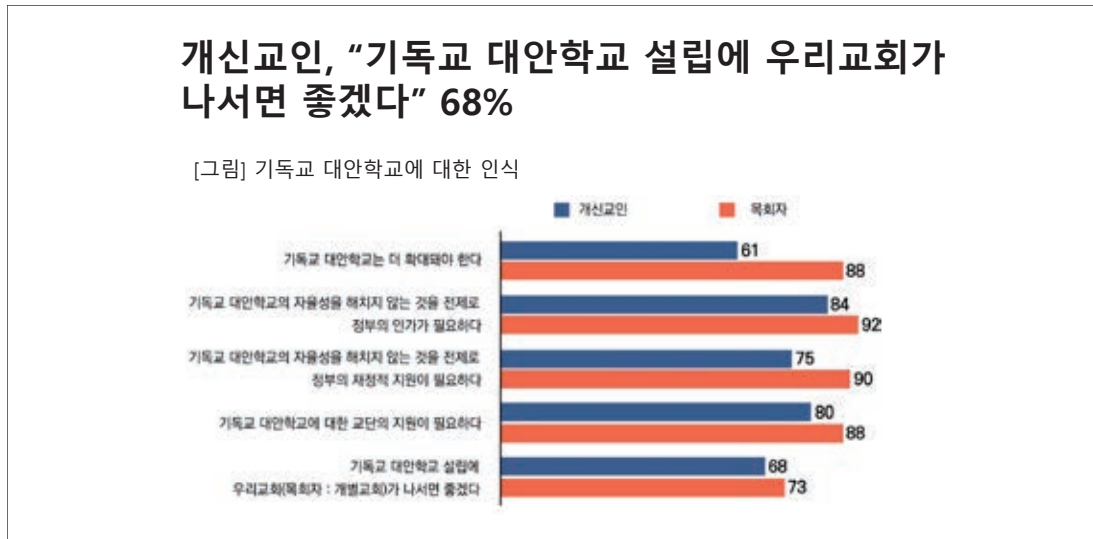
계속해서 개신교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더 확대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학부모 중 61%, 목회자 중 8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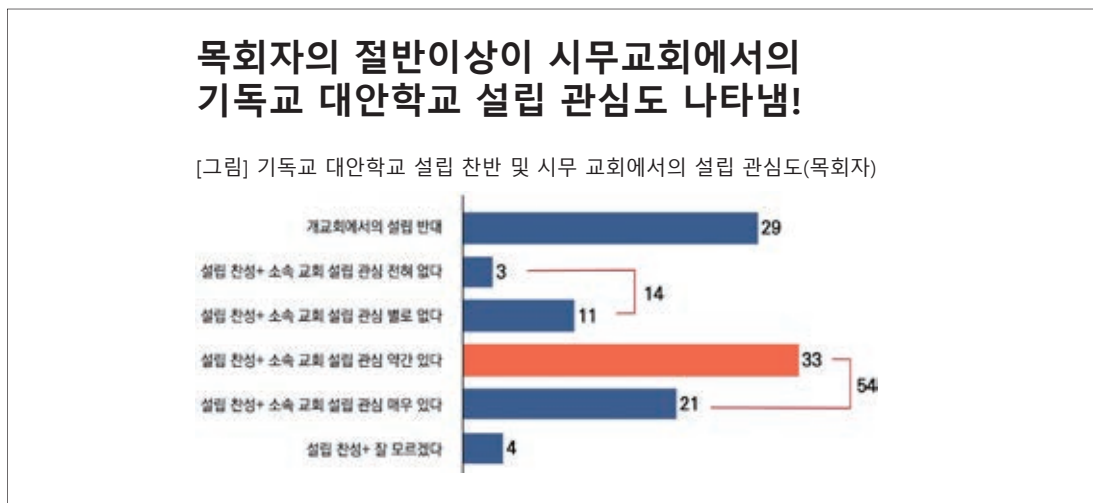
목회자 대부분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대안학교에 교단의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학부모는 80%, 목회자는 88%로 높게 나왔습니다.

부모에게는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우리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목회자에게는 "개별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학부모는 68%가 '그렇다', 목회자는 73%가 '개별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대안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아마도 공교육의 어떤 불신과 문제점, 특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문제점이 계속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와 목회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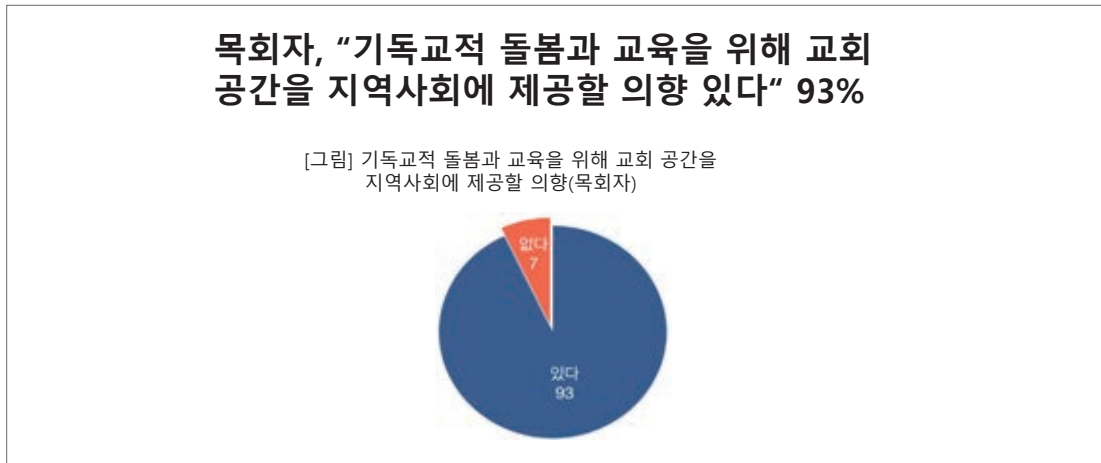
그리고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을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개교회 설립을 반대하는 목회자가 29% 정도 됐고, 설립은 찬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대답이 약 14%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설립도 찬성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분이 54%로, 절반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54%가량의 목회자 중에서도 대안학교 설립에 매우 관심이 있고 설립을 찬성하는 비율도 22%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아주 소형교회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와 목회자 중에서 대략 다섯 교회 중 한 교회 정도는 대안학교 설립에 관심이 크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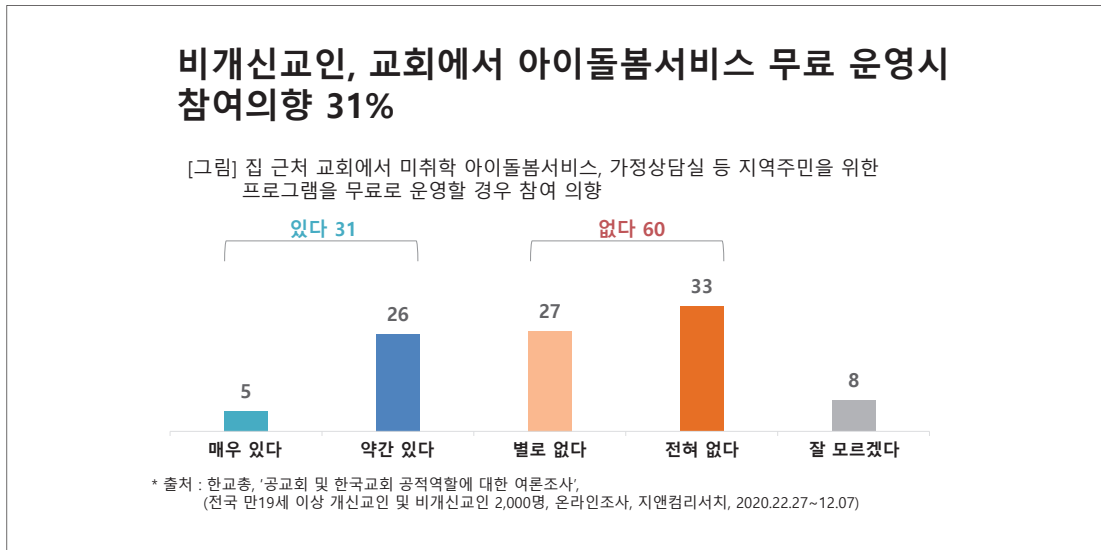
그리고 목회자에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적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려 93%가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른 한 가지는 현재 한국 교회의 대국민 신뢰도가 21%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주체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세 주체가 정치인과 국회의원인데,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21%까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문을 열어 돌봄을 실천하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신뢰도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한교총에서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공교회의 공적 역할에 관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비개신교인에게 물어 본 자료입니다.



이때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집 근처 교회에서 미취학 아이 돌봄 서비스나 가정상담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비개신교인에게 물어봤는데 31%가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조사 당시 비개신교인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겨우 9%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만약 문을 열고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32%가 들어오겠다고答한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높은 전도 효과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 2]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 교회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 당진동일교회 담임목사
- 한국소그룹연구원 연구위원장
- 목회전략연구소 소장
- 세계성시화본부 상임대표
-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자문위원

<대표 저서>

‘왜 그 교회는 젊은부부가 몰려올까,’

“이렇게 하면 풀린다” 등

안녕하십니까?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와 실행이 이렇게 CTS 방송국과 함께 시작됨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동입니다.

CTS다음세대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실리적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해 한 지인을 만나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식당 출입구에 “기독교인들의 출입을 사양합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입을 거절당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써 왔구나’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에서 전도하려고 나가 보면 이미 사회는 교회를 향한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자녀 보육의 못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선교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선교원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기관이었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보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민간단체까지 뛰어들면서, 교회는 보육을 사회에 아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일학생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의 대안조차 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네 가지 주제를 띄웠는데, 이들 부분이 국가가 보고 있는 출산정책과 관련한 키(Key)워드입니다. 직장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도 벽이 높았던 것은 물론 직장인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끌어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보육과 교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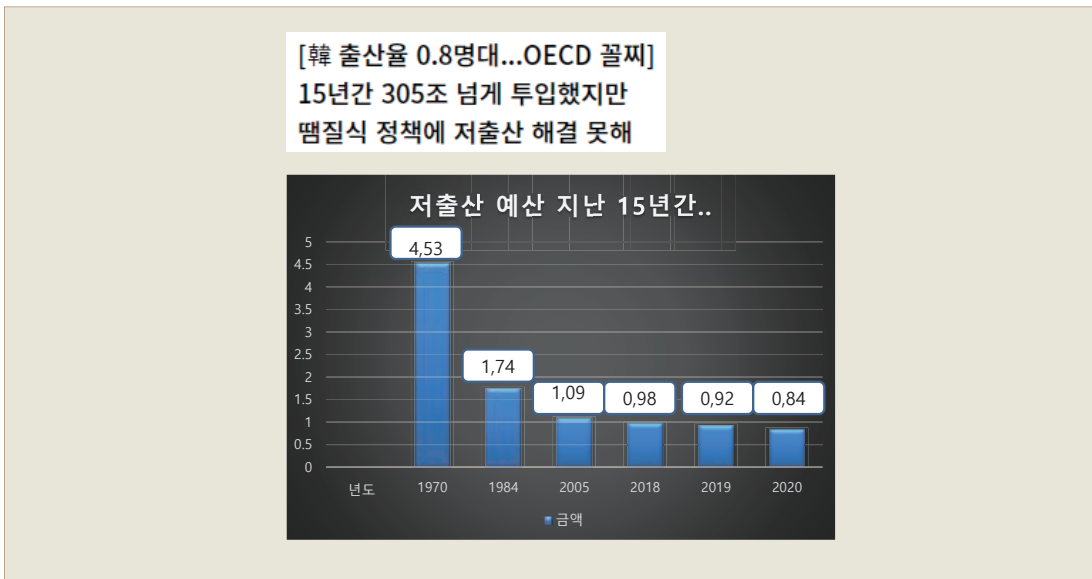
보육과 교육은 교회에가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아이 서넛 있는 가정은 공감하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동시에 입학하고 나면 부모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 수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이 무너지고 난 뒤에 사교육이 그 중심에 서면서 이렇게 휩쓸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부모는 여기서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같이 살지 마!” 지금 막 결혼시키는 자녀에게 50대, 60대 부모가 제일 많이 심어준 의식이 “너는 나같이 살지 마!”입니다. 여기서부터 결혼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일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15년간의 출산율을 나타내는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산율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305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소멸 도시로 떠올랐는데, 0.75%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 왔는데, 수도권이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버립니다. 이제 청년들은 사회의 반세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산업 개발을 해서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을 얻어 놓았는데, 부동산 값을 하늘까지 올려놔서 평생 뛰어도 집 한 채 얻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희망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국도 그만두고 아기 출산, 직장 다 그만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린 세대로, 알바 하루하고 일주일을 노는 세대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부산 출산율 추이

부산 출산율 0.75명...또 역대 최저 기록

통계청, 2분기 인구동향 분석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 작년 인구 대비 출산율은 0.84%를 찍었습니다. 출산율은 해를 거듭하며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게 됩니다. 출산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임 여성 세대가 거의 끊겨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인구 3만3000명 첫 감소... 출산율 0.84명 역대최저



5년 이내에 아이를 누군가가 낳아 주지 않으면 그 후에는 우리가 낳자 해도 다시 회복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5년 이내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같이 힘쓰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골에서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보육과 교육만 잘 관리해 나가면 분명히 아이는 태어납니다. 하나밖에 안 낳겠다고 결심했던 부부가 한 아이가 잘 크는 모습을 보면서 한 아이 더 낳고 싶어지고, 두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예쁘게 크는 모습을 보면 한 아이 더 낳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 본인에게 지워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걸 안아주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5만 교회가 함께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가능하므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5년이라는 시한인데, 지금 20~24세 미만으로 내려간 연령층의 폭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한 위기에 몰려 있음을 이해하고, 한국 교회가 뛰어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출산장려 요인에서 걸리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과 보육이 어울려 함께 가는 장면입니다. 자식이 많았던 과거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머니는 자식이 많아 일일이 돌볼 수 없었습니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아도 대가족이 함께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출산과 보육은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모든 부담을 엄마가 져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보통 10년 가까이 사회생활이 끊깁니다. 거기에도 아이를 하나둘 더 낳게 되면 엄마는 청춘을 거의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학력에 늦게 결혼한 엄마가 30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40대까지 사회경력이 끊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 문제가 이런 현실에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가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하지 못한 출산·보육을 책임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풍적인 관심을 끌면서 기업화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아이를 돌봐 주세요, 내가 돌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를 돌봐 주실 분을 찾습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 중에 적합한 이들과 순식간에 연결되면서 아이를 돌봐 주는 관계가 이뤄집니다.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여대생이나 젊은 주부가 내 집에 와서 내 아이를 본다 했을 때 직장에 있는 엄마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보육시설과 육아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에 맡기면 돌봄이 가능한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아이들을 맡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를 맡긴 엄마는 마음 편히 어디든 가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더 안전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5만 6,000여 교회가 다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해도 지역마다 이런 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국가와 지자체,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분히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안전한 보육시설과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구호단체가 북한을 위해서 20억 원가량의 재원을 투자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교회에서 연구해 만든 어떤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완성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9년 전 일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저희 집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나머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둘 수 없어 같이 데리고

가야 하니까, 아프지 않은 아이도 병원에 같이 따라 가서 입원하는 이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정어든 어디든 맡길 만한 어른들이 가까이 계시면 조금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정신적인 장애가 올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에 가서 “만약 아이가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돌봐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장에 가실 때 힘들면 아이를 맡겨 주세요. 저희가 그 시간 동안 돌봐 드리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게 교회 개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이 나중에는 아예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일학교가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엄마들까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돌봐 주고 나면, 마음에 미안함이나 뭔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기도해 주고, 찬송가 가르치고, 인성교육 잘 시키면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본 부모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빠·엄마에게 반말 하던 아이가 교회에 가서 며칠 놀다 오더니 확 바뀌어서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 어머니”하니까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인 아버지가 아이에게 징그러우니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배웠으니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돌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

10 자녀도 힘겹지 않았던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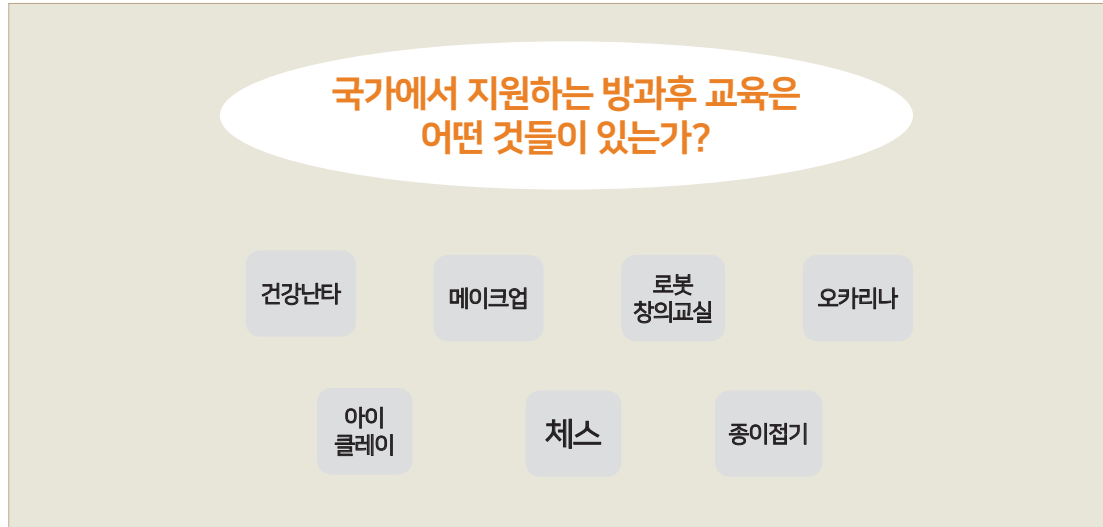


그런데 국가에서 305조 원을 투입해서 했던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건강, 난타, 메이크업, 로봇 창의교실, 오키리나, 아이클레이, 체스, 종이접기 등인데, 들어가 보면 아쉬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엄마아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에 일류 학원에 가서 더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남겨둘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정책이 학부모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다듬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학원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관점이 어렵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관점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힘써 나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정도 아이의 돌봄은 교육과 돌봄의 극치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이를 막 출산한
 산모는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나면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후 1-2학년이 된
 아이들은 좀 우스운 표현으로 하나님도 감당 못할 나이입니다.

초등돌봄

엄마의 비상시기
 초등 1학년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폭탄 같은 아이들입니다.
 어디로 뿔지 아무도 예측 안 되는 돌발시기

국가정책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시간 보내기 식 위주

아이들이 얼마나 희한하나 하면, 분명히 학원에 가기로 철석같이 약속하고 보냈는데 학원에는 안
 나타나고, 학교에서는 분명히 하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학원 차에 탔는데, 학원 문 앞에서 사라집니다.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켜는데도 아예 받지 않으니 어디냐고 물어 볼 수도 없습니다. 직장에 있는 엄마는 거의 초주검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찾으려고 다니다 보면 PC방에서 발견합니다. 내일부터 다시는 안 간다고 약속하지만 다음날 또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이니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서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차량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공부 복습도 시키고, 간식을 나누며 같이 어울려 놀아 주기도 하고 또 어울려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면서 소통합니다. 아이들끼리 모이게 되면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래모임이 아니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울리는 모임을 온종일 진행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켜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를 안 가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에는 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는 아이가 방과 후 교실 시간이 되니까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저 교회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초등부 아이들 돌봄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섯 명으로 출발했고, 현재는 교회 마당에 하루 5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옵니다. 우리 교회의 사례를 통해 작은 교회라도 돌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중앙 아래쪽 현수막 뒤에 많은 아이가 있는 사진은 아이들이 감자 캐기 농촌봉사활동을 나갔던 사진입니다. 어느 수요일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다 나와서 아이들이 호미를 들고 농장에 가서 종일 감자를 캐고 왔는데, 이날 대박 났습니다. 농장주가 아이들에게 감자를 한 보따리씩 안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첫 수확한 감자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마치 개신장군이 된 것처럼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돌봄센터가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위쪽 중간에 있는 사진은 6학년 아이가 1~2학년 아이들을 업어주는 장면이고, 나머지는 예절교육과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훈련, 자기를 돌아보는 묵상시간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되면 교회학교가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소문이 좋으니까 자꾸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세대가 교회에서 믿음과 인성으로 잘 양육되어 가는 시스템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부모가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다복한 사람의 척도가 다자녀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후에도 자녀 덕분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한둘만 낳고 말면 다음세대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질지는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어진 그 세대가 고령이 될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올지를 생각하면,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과 돌봄만 제대로 감당해도 출산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한국 교회가 같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다.

아이가 축복이다



한국교회가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CTS 기독교T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념 심포지엄

"한국교회 부흥되어 다음세대 세뉘기다"

일시 | 2021년 7월 14일 (수) 오후 2시
장소 | CTS아트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원동 100)

문의전화 | 02) 6333-2502

후원기관 |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협력기관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기록관리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연맹, 한국기독교청년회연맹



본 행사는 코로나19방역수칙 준수하에
CTS기독교TV 생중계
주요인사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CTS 시행명

CTS기독교TV, 각 지역별, 다중 채널, 생중계방송, 영상제작, 유튜브, TV 생중계, 후원: CTS,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연맹, 한국기독교학생연맹

YouTube, WAVE, DRIVE

소통하다



PART 4

출범식 사진 및 언론보도

출범식 사진

홍보 및 언론보도

CTS다음세대 프로그램 소개





1	2
3	4
5	6
7	8

- 1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오프닝
- 2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전 사전 설명회
- 3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전 사전 설명회
- 4 김양재 목사 기도
- 5 신정호 총회장 대회사
- 6 이철 감독회장 대회사
- 7 소강석 총회장 대회사
- 8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전 사전 설명회

1	2
3	4

- 1 감경철 회장 출범인사
- 2 3 지역본부장 Zoom인사-김미열 목사(강원), 박석진 목사(포항)
- 4 5 깃발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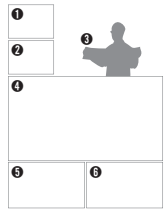
5



1



2



- 1 선언문 낭독- 이수훈 목사, 이행구 목사, 조병찬 장로
- 2 후원금 전달(CTS운영위원회)
- 3 4 출범식 구호제창
- 5 박병석 국회의장 축하
- 6 김부겸 국무총리 축하



3



4

출범식
구호제창
 장헌일 목사
 실행위원 |
 한국중흥전략개발연구원장

CTS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웁시다!**
 CTS



5

박병석 국회의장



6

김부겸 국무총리



①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의원 축사 ②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축사
 ③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축사 ④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축사
 ⑤ 김진홍 목사 축사 ⑥ 김종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비전기도
 ⑦ 장현일 목사 사회 ⑧ 고명진 목사 격려사 ⑨ 지용근 대표 강연 ⑩ 이수훈 목사 강연

PUBLIC RELATIONS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홍보

동아일보 2021년 7월 9일(금) 전면광고



조선일보 2021년 7월 8일(목) 전면광고



국민일보 2021년 7월 8일(목) 전면광고, 5단지면광고

TV

CTS기독교TV (2021.07.09)



https://www.cts.tv/post/2459050



[한국교회를 논하다] 354회

다음세대의 위기,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은?



- 사회자 : 박찬호 교수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 출연자 : 장헌일 목사 (한국공정정책개발연구원)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담임)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언론기사



동아일보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제21062호 ©

문화

A21

‘CTS다음세대운동본부’ 14일 출범... 기념 심포지엄도 열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한국교회 부모 되어 다음 세대 세워가자!

CTS기독교TV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본사 아트홀에서 '한국교회 부모 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과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출범식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의 기도로 시작해 본부 총재를 맡은 소강석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신정호 총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이철 감독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회사로 이어진다.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를 보냈다. 본부 상임 총재를 맡은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사진)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대한민국 근대사의 주역은 한국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됐다"며 "신앙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역으로 세워져야 하기에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밑알을 심어야 한다"고 본부 설립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발표하고,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회란 주제로 강의한다.

출범식은 CTS기독교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각 지역 케이블 채널과 스카이라이프, IPTV, CT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유튜브와 웨이브, 딜라이브에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검색하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eworld@donga.com

언론기사

국민일보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기독교뉴스

역대 최저 출산율 “교회가 섬김으로 보육·교육 책임지자”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

목회자·교계 대표 등 284명
시대적 비전 공감하며 동참
내일 출범식·심포지엄 진행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30만2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을 저해한 아동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교회학교 학생 수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교세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해 초등부는 37%, 중·고등부는 30% 감소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CTS기독교TV는 14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다음세대 세력기지'는 슬로건을 내걸고 CTS아프리카에서 '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한다. 교회가 보육과 교육이 절실한 공동체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다음세대를 세우자는 취지다.

감경철 회장은 “다음세대의 위기는 많이 나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과 고통을 끌어안고 섬김으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진다면 출산율이 해결된다고 믿는다”면서 “이번 출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사옥에서 '다음세대운동본부' 로고가 새겨진 30일 앞에서 손해료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아래는 CTS에서 2016년 설립한 대한학교 크리스찬쿨로필스쿨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 CTS기독교TV 제공

범식을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하나씩 나서 기여하는 다음세대 사역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출범식에는 장·교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1부 출범식에는 김양재 우리교회 목사의기도를 시작으로 다음세대운동본부 총재로 섬기는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동회장, 신정호 예장통합 총회장, 소

경석 예장합동 총회장이 대회사를 전한다.

2부 행사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목회 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한국교회 성공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서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

회'란 주제로 다음세대 사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에는 총 284명의 목회자들과 교계 대표들이 총재와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과 실행위원, 지역본부장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교회는 안전하게 자녀들을 맡길 교육 장소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출산 후 자녀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돕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국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경석)이 발간한 목사이 2020년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시 비개신교인 31%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CTS는 16년간 다음세대 양육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왔다. 2006년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전국 37곳에 CTS 저유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세미나, 대안교육 필재하를 위한 공개 토론회, '한 교회를 위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주요 교단 교육부서와 협력해 기독교방송 회초로 'TV여성성경학교'를 진행했다.

감 회장은 “교회는 다음세대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다음세대운동본부'를 통해 한국교회가 공간과 인프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다음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윤진 기자 mhre@kimb.co.kr

한국기독교공보

2021년 7월 18일 일요일

종교

news

“한국교회가 다음세대 부모되겠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교회가 교육과 보육공동체 돌보는 부모 역할 다짐



CTS기독교TV '다음세대 운동본부 출범식'이 지난 14일 오후 2시 CTS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한국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섬김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선포했다. CTS기독교TV(회장·김경철)는 지난 14일 CTS본사 아트홀에서 '한국교회 부모 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란 대표 슬로건으로, CTS 다음세대운동본부(총재 : 신정호, 이철, 소감)출범식을 개최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역대 최저 출산율로 다음세대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앞에 무엇보다 행복한 다음세대를 세워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연대해 발족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다음세대를 일어가는 한국교회가

부어하고 응집력을 갖게 할 것이며 한국교회의 부모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총회장은 또 "다음세대는 바로 우리 앞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고 이들이 살아갈 세상인 지금이 바로 다음세대"라고 강조하고, "그렇기에 오늘 이 출범식은 다음세대를 새롭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새롭게 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회사, 출범인사, 기발·화분 전달식, 선언문 낭독, 구호제창과 장·교계 인사들의 축사 등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출범식

이후 세 가지 운동 목표를 세우고 사역을 확장한다. △청년세대가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자녀 보육과 교육 환경을 마련 △교회는 안전하게 자녀들을 맡길 교육 장소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자녀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점을 해결 △교회가 가진 공교회상인 사회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앞세워 다음세대와 지역을 섬길 계획을 밝혔다. 또 △다음세대 사역의 성공 사례를 나누고 다음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동역 요청 △이를 위한 교육 현장 지원과 연구 지속 △다음세대와 부모세대에게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컨설팅 및 강사를 지원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적극 지원 △비인가 학교로 지정된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정·교계와 함께 노력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현장을 지원할 계획을 전했다.

© 최은숙 기자

기독교연합신문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하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종교

news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 만들것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 출범식'

한국교회가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워가길 기대하며, 다음세대 희망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단체가 설립 됐다. CTS기독교TV(회장·김경철) '다음세대 운동본부 출범식'이 지난 14일 오후 2시에 CTS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설립된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공동체로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인사말씀을 전한 CTS 김경철 회장은 "교회가 주중 유희공간을 보육과 교육시설을 위해 지역사회에 가까이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운영을 지원 한다면 훨씬 나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한국교회 다음세대 희망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교회가 교육과 보육의 공동체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면서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한국교회와 협력해 영유아, 청소년, 청년, 부모, 교회학교, 대안학교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 정아라 기자

언론기사

인터넷기사



○○○ ≡

크리스천투데이 2021.07.01 (목)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기념 심포지엄 갖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

NEWS POWER **NP** 한국 교회의 나침반 2021.07.14 (수)

뉴스파워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꿈과 가치관을 잃어가며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자는 취지를 갖고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혀"

<https://www.newspower.co.kr>

크리스천연합신문 2021.07.19 (월)

CTS, 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http://cupnews.kr>

교회연합신문 2021.07.20 (수)

CTS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 것"

<http://www.ecumenicalpress.co.kr>

기독교한국신문 2021.07.20 (수)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다음세대 세우기 위한 섬김 사명 다짐

<http://www.cknews.co.kr>

침례신문 2021.07.20 (수)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기념 심포지엄

<http://www.baptistnews.co.kr>

CTS 다음세대 프로그램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

전 국민과 함께 다음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신개념 공익 버라이어티 쇼,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

개그우먼 오나미와 아나운서 이강준이 전국의 다음세대 사역현장으로 찾아가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직접 체험해보며, 가슴 벅찬 다음세대의 짠 스토리를 보다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다음세대 마이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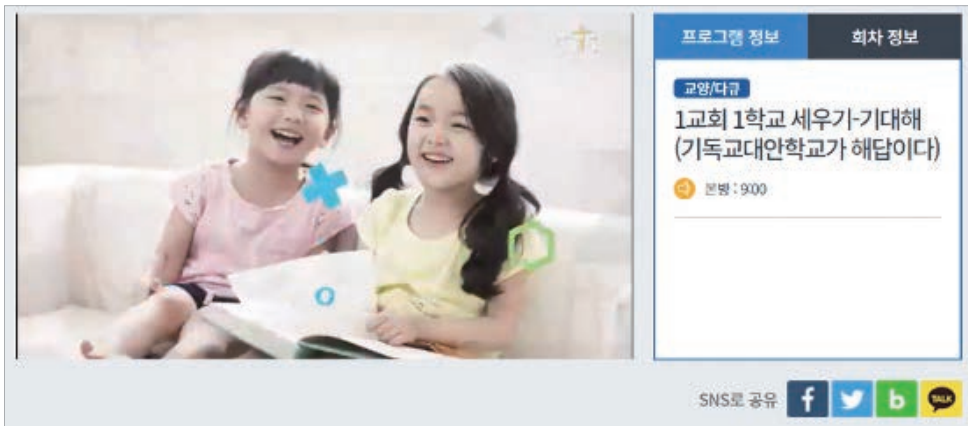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은 대안학교 아이들의 TED식 강연. 아이들이 선정한 다양한 주제로 매주 3명의 아이의 TED식 강연을 통해 다음세대의 가치관과 관심사 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정보	회차 정보
	교육/특강 다음세대 마이크 ON Ⓜ 분량 : 900	
SNS로 공유		

CTS 다음세대 프로그램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의 대안학교를 세우자는 취지로 제작된 프로그램.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학교 설립 이야기부터 기독교 교육을 통해 변화된 다음세대와 대안학교의 행복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CTS TV 여름성경학교

코로나19 상황에도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의 여름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

올해 프로그램은 교회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이뤄질 수 있게 주요 교단의 교육국과 공동 기획 후 준비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세대 세워가자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다음세대가
행복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
CTS Next Generation Movement Headquarters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02-6333-1110**